육아정책연구
제2권 제1호(2008. 6). 1-22.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유희정[1)]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통하여 영유아들의 발달과 적응 실태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실태는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 안성, 평택 지역 11곳의 보육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39명에 대한 담당교사 면접 및 아동 발달, 또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 보육시설, 지역사회 단위의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3-D업종의 노동력을 이주 노동자들로 대폭 충원했고 같은 시기 조선족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 농촌지역으로 결혼이주여

1)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성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2005년 국제결혼건수는 4만 3천 121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3.6%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결혼은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나타나 있다(통계청, 2006). 법무부가 추산하고 있는 345,679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합법체류자가 164,887명(47.7%), 불법체류자 180,792명(52.3%)이지만(법무부, 2005), 국제이주기구(IOM)는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은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나 혼혈아동의 차별적인 용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단일 민족 사회를 자랑스럽게 여겨 온 우리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화에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들이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우려를 보고하고 있다(민경자, 2003; 홍기혜, 2000)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은 다문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처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교육수준이 높거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더 많은 문제에 노출되고 영유아들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 중소도시로 몰리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은 국제결혼가정과 더불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 중 이주 여성 가구의 50%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이다. 결국 이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러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 가정은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23.2%),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13.3%)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을 위한 가정,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

각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양육에서의 문제점과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분석하고,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부모 대상 지원방안,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대상 지원방안,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1. 중앙정부 지원 현황

영유아기란 발달과정에서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지원과 투자는 발달과정의 다음단계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OECD, 2006). 즉, 다문화 가정으로 인하여 문제를 지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들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오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 정책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가정환경 특성으로 인하여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비록 부모가 다른 나라 사람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나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정의 지원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지원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2].

아직까지 지원대상은 외국인 여성과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아동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정책들은 이제 시작단계인 수준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의 표는 2007년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표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현황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여성가족부	·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 한국어 교재 개발 · 한국어 교실 운영 ·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립	
법무부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 · 결혼이민자의 이혼, 별거 시에도 자녀접견을 위해 국내 체류 허가	· 입국 심사시 국적, 인권 관련 정보 리플렛 제공
보건복지부	·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보조(펄벅재단 위탁) · 빈곤층 혼혈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이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 재산 제외 ·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렛 제작	
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등 고용관리
문화 관광부	· 국제결혼이주여성 언어사용 실태조사 실시 (국립국어원) · 이주여성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 한국어 강좌 개설 운영(한국어세계화 재단)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	
교육인적 자원부		·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절차 완화

2) 여성 가족부(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국제결혼가정에 맞춰져 있고, 이들의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안정된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 보다는 아직까지는 언어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지원 대상이 다르고 개별 입법화 되어 있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현황

중앙정부 중심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가정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은 교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도 다문화 가정들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은 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현황

시/도		사 업 내 역
경기	도	경기도내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체험 등
	수원시	외국인주부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한글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육 등)
	성남시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한국어 및 요리 교육
	안양시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 이주여성 보호 사업(문화 활동,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
	광명시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교육
	광주시	한국어교육
	포천시	한국어교육
강원	도	외국인주부 멘토링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외국인주부를 위한 외국어문화교실
		외국인주부 자매결연 및 화합행사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PC실무과정
		여성결혼이민자부부 양성평등 교육 및 부부외출프로그램
		평등가족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외국인주부 부부연수회
		외국인주부 문화탐방
	원주	한글교육반 강사수당, 연찬회참가 여비
	강릉	외국인주부 연찬회, 전통문화체험
	동해	외국인주부 출산비 지원
	태백	외국인주부 명절 위문, 생활안정지원, 간담회 급식비
	홍천	외국인주부 연찬회참가 여비 보상

<계속>

강원	횡성	취학 전 자녀양육비 지급, 가족연수회, 한글교실 수강생 현장학습, 교류참석 여비 보상
	평창	외국인주부 교육 및 행사참가 여비
	정선	외국인주부 친정방문지원, 만남의 날 행사
	철원	외국인주부 친정방문지원, 워크숍
	화천	한국어교육, 예절교육, 향토문화탐방, 요리교실, 가족캠프, 친정방문프로그램, 외국인주부 가족의 날
	양구	한글교육, 전통문화교육, 외국인주부 강사활용 외국어교육
	인제	문화체험, 전통예절교육, 생일케이크보내기
	고성	외국인주부 교육(전통요리, 한글), 문화유적지 답사, 외국인주부 만남의 날 운영
	양양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교포해외여성 친선대회, 명절위문
충북	도	부부연수,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 순회교육(가족문화, 임신, 육아), 이주여성정착 지원센터 지원(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자녀놀이방 운영 등), 충북이주여성 인권센터 지원(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문화교실운영 등)
	청주시	문화체험
	충주시	문화교육
	청원군	외국인주부아카데미
	보은군	외국인주부 요리솜씨 자랑, 외국인부부 합동결혼식
	진천군	문화유적 답사
충남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 우리문화보급사업, 자녀학업자료지원
전북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사업, 네트워크사업, 가족교육사업
전남	도	부부공동체훈련 지원
	여수	이주여성간담회, 이주여성보호 및 이혼관련 프로그램 운영
	순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나주	주부쉼터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
	담양	이주여성 외국어강사료, 가족공동체훈련, 한국문화교실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곡성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원어민교사 인력양성 사업, 이주여성 가족의 날 지원 사업, 외국인주부 여성교육 참석보상
	구례	외국인여성 및 가족 한국문화탐방, 외국인여성 한국문화 예절 익히기
	보성	한글 및 문화교실
	화순	한글 및 문화학당운영
	장흥	전통음식 및 꽃꽂이 교육
	강진	한글교육지원, 한글 및 문화적응 교육, 출산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남	외국인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
	영암	부부공동체교육, 출산용품지원 사업,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교육
전남	장성	한글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
	함평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영광	우리문화이해와 생활교육
	완도	전통문화강좌 운영
	진도	외국인여성주부 워크숍, 외국인 배우자 가정 지원
	신안	문화탐방 및 부부교육
경북	도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 외국인주부 멘토 제도 운영
	구미	외국인 정보자료실 운영(3개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안동	외국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영양	이주여성 간담회
	고령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체험교육
	성주	행복한 농촌가정 만들기 사업, 외국인주부 문화유적 탐방
	예천	외국인여성 및 자녀교육
경남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발간, 부부교육, 생활 및 가족상담, 문화교육, 부부(가족) 캠프, 국제결혼가정학교, 결혼이민자 가족 어울 마당

Ⅲ. 다문화 가정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1. 연구대상 및 방법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구로구와 경기도 안산, 안성, 평택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2007년 5월 1일 - 5월 30일 기간 중 연구자가 총 11곳의 보육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담당교사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는 총 39명으로 부모의 국적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더 많았다. 국적분포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았다.

<표 3> 부모 국적

단위 : 명

아버지 국적	인 원	어머니 국적	인 원
합계	39	합계	39
한국	30	한국	6
중국	5	중국	22
미국	3	필리핀	4
기타	1	일본	2
		태국	2
		기타	3

2. 영유아 발달 특성

본 설문조사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아 7명, 유아 32명이었다. 이들의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의 발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발달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언어와 인지발달에서는 일반 영유아들에 비하여 발달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 영유아 발달

1) 신체발달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신체발달 상태는 대다수가 특별한 차이는 없었으며, 36명 중 3명(7.8%) 정도가 다소 신체발달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원인이 다문화 가정에 있다기보다는 유아의 기질적인 면이 반영되는 것 같았다. 또한 신체발달이 조금 과체중인 경우도 있었는데, 식사를 잘 하거나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담당교사들은 다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다만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결 문제였다. 모든 교사들이 대체적으로 청결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표 4> 신체발달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차이 없음	36	92.3
다소 뒤떨어짐	2	5.1
많이 뒤떨어짐	1	2.7

2) 정서발달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정서발달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79.5%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정서발달은 한국어 습득과 연관이 있어 보였으며, 정서발달상 문제가 없는 유아들은 한국어 습득이 어느 정도 익숙한 경우였다. 한국어 습득이 미흡한 유아들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정서발달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서발달에 문제가 많은 유아의 특성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로써 방임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었다.

<표 5> 정서발달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차이 없음	8	20.5
다소 뒤떨어짐	30	77.0
많이 뒤떨어짐	1	2.5

3) 언어발달

언어발달은 영유아기에 매우 중요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조사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선행연구에서와 유사하게 언어발달에서 다소 뒤떨어지고 있었고(89.8%), 그 원인 중 하나가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자녀와 대화 시에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정환경에 있는 유아들은 유아기동안 한국어 습득시기를 놓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4세 이후에 보육시설에 온 유아들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보육시설에 일찍 온 아이들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표 6> 언어발달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차이 없음	4	10.2
다소 뒤떨어짐	26	66.7
많이 뒤떨어짐	9	23.1

4) 인지발달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언어발달이 늦는 경우에 대하여 교사들은 늦은 언어발달은 이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언어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해력 부족으로 연결되는데, 일차적으로 언어발달이 뒤늦은 아이들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 일대일로 의사전달을 하지 않으면 유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이런 영유아들을 위하여 교사들이 부모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여도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 7> 인지발달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차이 없음	14	35.8
다소 뒤떨어짐	24	61.6
많이 뒤떨어짐	1	2.6

5) 사회성발달

그러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사회성발달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자유놀이시간이나 놀이프로그램 시간에 서로 손잡고 뛰고, 달리는 모습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라고 하고 특별히 분리될 이유가 없었다('차이 없음', 71.8%). 다만 교사 면담결과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5세 이상 반의 아이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는 듯 했으나, 이것을 이유로 크게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중퇴율이 9.4%, 중학교 중퇴율이 17.5%인 것(일반학생 1.1%)을 고려해보면(펄벅 재단, 2001), 유아기의 긍정적 사회성 형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성발달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차이 없음	28	71.84
다소 뒤떨어짐	10	25.6
많이 뒤떨어짐	1	2.56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신체발달에서는 일반 가정의 영유아들에 비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언어발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지발달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나. 자아정체성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이 일반가정 영유아들에 비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2%). 영유아들은 영아기를 지나 유아가 되면서 자신들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부터 자아정체감에서 조금씩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28.2%가 자아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9> 자아정체성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문제없음	27	69.3
다소 문제있음	11	28.2
잘 모르겠음	1	2.5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있다', 56.5%). 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놀이를 주도해 나간다거나 놀이규칙을 정하는 일은 잘하지 못하며, 친구들과 교사의 눈치를 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표 10> 자신감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문제없음	17	43.5
다소 문제있음	21	53.9
많은 문제있음	1	2.6

다. 또래와의 관계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또래 및 교사와의 적응은 89.8%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들이 또래들과의 놀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여도 그 원인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 본인의 기질적인 면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또래와 적응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문제없음	35	89.8
다소 문제있음	4	10.2

<표 12> 놀이 성취도

단위: 명, %

발달상태	빈도	비율
문제없음	35	89.8
다소 문제있음	3	7.7
잘 모르겠음	1	2.5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유아의 언어 능력과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발달이나 적응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언어사용의 문제가 없는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발달 상태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동시에 유아의 언어발달에도 문제가 있었다.

<표 13> 교사와 적응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문제없음	33	84.6
다소 문제있음	6	15.4

라. 부모의 양육태도

설문조사 및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부모의 한국어 사용능력과 관계가 있었는데 부모의 자녀양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모들은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외국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국가가 다른데서 오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안에서 훈육이나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육시설에 와서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부모들은 그들의 문화와 국가에 따라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부모의 양육태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문제없음	4	10.2
다소 문제있음	19	48.8
문제가 많음	15	38.4
잘 모르겠음	1	2.6

그러나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사례들의 경우 공통된 사항은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국에서의 학력이 낮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경우였다. 언어발달상태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영유아 9명의 부모들의 사례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발달상태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한국어가 서툴러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경우 유아는 안정적인 발달을 성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방임에 가까운 경우 유아의 발달상태는 반드시 좋지 않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적절한 발달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된 양육자인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부모들이 한국에 적응해 가는 동안 영유아들이 집안에서 방임되기 보다는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문제없음	16	41.1
다소 문제있음	11	28.2
문제가 많음	11	28.2
잘 모르겠음	1	2.5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는 어머니가 이중 언어를 사용할 경우, 즉 자신의 자녀와는 자신의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남편과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 유아들이 언어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언어적 혼란은 다시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자신감 등에서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마. 시설이용 실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역시 부모와 시설간의 의사소통이었다. 이 부분은 외국인 부모와 교사 쌍방이 모두 동시에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대부분 하루 일과 및 공지사항, 준비물 등을 수첩에 적어서 하원시 보내주는데,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림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의 준비물이나 행사 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다급한 일이나 부모 면담을 전화로 대신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교사로서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표 16> 시설-부모의 의사소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문제없음	7	17.9
다소 문제있음	19	48.8
문제가 많음	12	30.7
잘 모르겠음	1	2.6

이와 같이 시설과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사 및 시설장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보육시설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1.9%가 이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7> 시설의 배려 유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없음	9	23.0
조금 있음	15	38.4
많음	13	33.5
잘 모르겠음	2	5.1

보육시설들이 제공하고 있는 배려의 사례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다른 유아들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주고 대화를 나누어 준다거나, 혹은 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다른 부모들 보다 부모 상담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었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유아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교사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부모의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본국에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가, 그리고 한국어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등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보육시설을 일찍 이용한 경우는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언어발달과 정서발달상에 커다란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Ⅳ.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방안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은 사회적응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이 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들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우선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겠으며, 나아가 다문화 가정 및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방안은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대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1. 다문화 가정 부모 지원방안

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담당교사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중요 요인이 부모들의 양육태도와 부모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 한국어 습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부모들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일찍 이용하기 시작한 영유아들은 그래도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영유아들의 언어발달이 늦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 유아의 경우, 만 4세 이후 보육시설에 오기 전까지 필리핀 어머니의 필리핀 친구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한국어 습득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고, 뒤늦게 아버지가 심각함을 느껴 보육시설에 다니게 된 사례이며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동일연령의 다른 유아들에 비하여 늦음을 알 수 있었다.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27.5%[3]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일반아동 56.8%, 여성가족부, 2005),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언어발달에서 문제가 발생할 비율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20.2%는 모국어와

3) 표본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국제결혼 이민 여성과 그 한국인 배우자 1,082명을 면접 조사함

병행하면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심지어 자녀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어머니도 1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안현정, 2003) 외국인 어머니를 둔 영유아들이 연령에 맞는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제결혼 가족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유교문화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처럼 다민족으로 구성된 개방적 사회라기보다는 외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이므로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이들이 우리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어른들께 인사하는 방법 등의 예절, 부모와 자녀관계, 우리나라의 명절문화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생활방식을 자기나라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는 등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라는 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각 나라 언어별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 교육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혹 양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 익히기는 단지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필요한 정도이므로 자칫 자녀들의 정체성에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한국인 영유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지만 국적이 다른 한쪽 부모의 국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유아 양육 상담지원

본 연구 결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발달이 중요한 유아기에 언어습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 어머니가 임의로 자음과 모음만을

가르쳐서 보육시설로 보내어 글자를 읽으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하였다. 혹은 외국인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보육시설에서 부모들을 위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맡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언어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이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라.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사이버 상담소 설치 운영

현재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여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들에서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이 보다 손쉽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이버 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완충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성전문 상담 전화인 1366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권복순 외, 2006).

2. 보육시설 지원방안

가. 보육시설 종사자 준비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각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적이 다른 부모들로 인하여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육교사들은 이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

하고 보육시설에서 또래들과 즐겁게 적응하면서 성장하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이란 차별이 아니고 단지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도록 하는 교육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단일 문화로 간주되던 우리 사회에도 이제 다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정이나 국제결혼 가정이 한국 사회 사이에서 종종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동화를 강요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습과정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아이들이 편견 없이 국제결혼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정규교육과정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영유아 부모 대상 교육, 교사연수에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이 특정한 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일상생활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현재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성화된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30%를 밑돌기 때문에 이에 접근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고려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방문한 보육시설들은 주변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월 보육료가 부담스러워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많은

외국인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방문하였으나 보육료 부담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이 밀집된 곳에는 다문화 가정 특별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지원방안

가. 대학생 멘토링, 대리 가족제 등 지역사회 운동 전개

복지관련 학과, 국어나 외국어 관련 학과 학생들을 일정 교육을 거쳐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내의 대학과 지방자지단체가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교류창구를 설치하고 국제결혼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와 대학생들을 연결해주면 일대일 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제 막 결혼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먼저 이민을 와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가정을 일정기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다(정진경 외, 2005). 이들 중에는 모국에서 학력이 높거나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들을 선별하여 다문화 사회 활동가, 즉 일본의 야마가타 자원봉사센터(JVC: Japanese Volunteer Center)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에게 통역인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통역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업무를 실천하는 것(보건복지부, 2005)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의 공공화 추진

불법체류자들인 경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대부분이 여러 종교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정부차원에서도 마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생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권복순,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 109~134.

김정원(200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문제와 다문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민경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통계청(2006). 인구동태조사.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 33~52.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법무부(2005). 국적별 체류현황.

홍기혜(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OECD(2006). *Starting Strong Ⅱ.*

• 논문접수 2008년 4월 2일 / 수정본 접수 4월 18일 / 게재 승인 5월 9일

• 교신저자: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hjyoo@kicce.re.kr

ABSTRACT

A Study on Uses of 'Child Care Servic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Developing Support Systems for Muiticultural Family

Yoo, Hee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uses of 'child care servic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to suggest the measures of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y. 11 'child care centers' were visited where congested with foreign employe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Seoul, Ansan, AnSeong, PyeongTaek. And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eachers and a total of 39 questionnaires were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measures of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y's parents and 'child care center' of their childre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